

여자 고등학생 흡연자의 영양상태 평가 및 흡연관련 요인분석 -II. 흡연과 관련된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

임재연 · 김소림 · 김정희 · 김정원. 서울여자대학교 영양학과

Assessment of nutritional status and factors related to smoking in adolescent females : II.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smoking. Jaewon Kim, Sorim Kim, Kyungwon Kim and Junghee Kim, Dept. of Nutrition, Seoul Women University

본 연구는 여자고등학생들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사회심리적요인을 행동예측이론 중 하나인 계획적 행동 이론에 기초하여 조사하고 흡연 행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1998년 4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내 2개 상업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되었으며, 조사 당시 흡연을 하고 있던 학생을 흡연군으로 흡연을 하지 않던 학생 중 무작위 추출에 의해 선정된 학생 135명을 비흡연군으로 하였다. 개방형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설문지에서는 일반 사항 및 생활 양식을 조사 하였으며, 흡연시 유발되는 결과에 대한 신념(26 문항)을 '매우 그렇지 않다(-2)에서 '매우 그렇다(2)'로, 흡연에 대한 규범적 신념(9문항)을 '강하게 반대(-2)'에서 '강하게 동의(2)'로 그리고 흡연 욕구를 자제 및 금연에 대한 자신감(20 문항)을 '매우 어렵다(-2)'에서 '매우 쉽다(2)'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대상자들의 신체적 특징 즉, 연령, 키 그리고 몸무게는 흡연군과 비흡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또한 커피의 섭취 정도도 흡연자, 비흡연자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흡연자들의 초기 흡연 동기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주변 권유, 대인관계 향상 순이었고, 현재 흡연자들의 주요 흡연 요인으로는 습관적으로(46.2%)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스트레스 해소, 주변권유, 대인관계 향상 등이 있었다. 흡연에 대한 신념을 알아본 결과 흡연자들은 흡연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즉 심장과 혈액순환장애, 암유발(폐암)의 가능성, 체력 감소 ($p<0.05$)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흡연시 긴장완화, 스트레스 해소 ($p<0.001$)등 심리적 효과에 대해 비흡연자보다 긍정적이었다. 흡연군은 비흡연군에 비해 흡연시의 장점, 즉 '담배 맛에 대한 기호', '입이 심심할 때 좋다', '살이 빠진다'($p<0.001$)에 더 동의하였다. 또한 흡연군은 흡연시의 주위사람들에 대한 피해나 치아 변색, 숨쉴 때에 좋지 못한 냄새, '돈이 많이 든다'($p<0.001$), '옷에서 나쁜 냄새가 난다'($p<0.01$), '가래가 생긴다'($p<0.05$) 등 흡연시 단점을 덜 느끼고 있어 흡연으로 유발되는 다양한 결과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청소년기 여성의 흡연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흡연에 대한 규범적 신념에서는 부모나 선생님, 주위어른 등 어른들은 두 군에서 모두 대상자의 흡연에 대해 매우 반대하고 폐쇄적이었고 두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흡연군의 형제, 친구, 학교 선배는 비흡연군에 비해 대상자의 흡연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p<0.001$). 특히 흡연군에서 흡연하는 친구들이 개방적인 입장을 보여, 주위인들이 청소년 흡연을 결정짓는 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흡연욕구 자제에 대한 자신감 및 통제력 비교에서는 흡연군은 식사 후에, 지루할 때, 친구들과 어울릴 때, 화가 날 때, 친구들이 담배를 권할 때, 커피나 차를 마실 때, 술 마실 때,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p<0.001$) 등의 상황에서 흡연욕구를 자제하려는 자신감이 더 낮았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행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신감이 실제 행동 수행에 매우 중요함을 제시한다. ©